

지역 스타트업, 수도권 투자사에 ‘눈도장’

11~12일 목포 해관1897서 호남권 IR 캠프
Meet-Up상담·경진대회·실무 특강 등 진행

광주·전남지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행사가 목포에서 열린다.

10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 광주·전남·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8개 기관과 공동으로 ‘2025년 광주·전남·제주스타트업 통합 IR 캠프’가 11~12일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중심의 벤처투자 환경속에서 상대적으로 투자 접근성이 낮은 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실제 수도권 투자사와의 만남을 통해 후속 투자로 이어

질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투자 벤처펀드를 운용 중인 30여개 투자사가 참석하며 지역 유망 스타트업 44개사와 창업지원 8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00여명 이상이 참여해 지역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높인다.

행사 1일차에는 투자사와의 1대 1 Meet-Up 상담, IR 경진대회, 라이선스기업(라이프스타일 & 로컬 분야 혁신기업) IR 및 투자 특강 등이 진행된다.

참여기업은 사전 매칭된 투자사와의

Meet-Up 상담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경쟁력 및 성장가능성 등을 피드백 받고 후속 투자 및 협력 기회를 갖게 된다.

IR 경진대회는 2개 그룹(A/B, 각 10여개사)으로 나뉘어 동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1점과 광주·전남지방중기청장상 3점이 수여된다.

참여기업의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투자계약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행사 2일차에는 IR 경진대회 시상식과 함께 투자이행서 체결 협약식이 진행되며

행사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VC가 직접 알려주는 투자유치 전략’을 주제로 실무 중심 특강이 진행된다.

박종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통합 IR 캠프는 지역 창업기업이 수도권 투자사와 직접 만나 성장 가능성을 검증받고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투자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협은행-한국농어촌공사
농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NH농협은행과 ‘농지 서비스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통합포털’과 농협은행의 ‘내일의 땅’을 상호 연계해 농지 매물을 공동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양 기관은 올해 안에 각각의 플랫폼에서 보유 농지 정보를 통합 제공해 농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농지 관련 신규 서비스 공동 발굴·추진, 대국민 농지 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도 함께 하기로 했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이용자가 익숙한 플랫폼에서 필요한 농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신규 진입자의 정보 탐색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해 더 쉽고 빠르게 농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은행 통합포털은 농지를 소유한 이와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매매·임대 매물 정보와 가격, 임차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사는 더욱 많은 이들이 농지를 쉽게 확인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물 정보를 공공·민간 부문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목포보호관찰소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협 전남본부와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는 10일 합평 나산면에서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 김영철 나비골농협 조합장,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이날 봉사활동에서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배와 장판 교체, 집안 청소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협 전남본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목포보호관찰소가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특가·재능봉사’ 사업이다.

도내 지원이 필요한 11농가를 선정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0여명이 도배·장판 교체와 주변 환경 정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농협 광주본부, 농업인의 날 맞아 가래떡 나눔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빛고를 농업인 한마당’ 행사에서 지역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가래떡데이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우정사업본부, 폭설 시 배달 일시 중단

내년 2월까지 특별 관리기간 운영...안전사고 예방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종사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겨울철 안전보건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관리 기간 중 예산 7억7000만 원을 투입해 전국의 집배원과 물류 종사원 등에게 핫팩, 방한토시, 넥워머, 마스크 등의 한랭질환 예방 용품을 지급한다. 배달 차량과 우체국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도 벌여 한파와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각 우체국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는 집배원 등 외근 직원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체국 출국 전 당일 기상 상황과 겨울철 안전운전 등 교육과 점검을 진행한다. 이륜차 안전모 착용, 타이어 마모 상태, 제동장치 등의 안전 점검은 수시 확인한다.

배달 업무 중 기상 악화로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도로 결빙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 업무를 집배원 스스로 일시 정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복귀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자연배달이 예상될 시에는 고객에게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

광주인자위, 내년 사업계획 논의 등 본회의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10일 광주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5년 도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 시장을 비롯해 고병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윤옥균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등 20명이 참석해 내년 광주인자위 사업계획 및 수행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기본계획,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광주인자위는 ‘지역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및 미래신산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미션을 설정하고 구직자 인력양성 1000명, 재직자 직무능력향상교육 2000명, 고

용창출 300명, 기업지원 150건, 기초·심층 수요조사 등을 세부 사업계획으로 수립했다.

또 지역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훈련기관 공급 현황과 인력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맞춤형 구직자,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공급 방향을 제시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인자위가 수행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고용시장 이중구조 현상 등 고용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 이슈도 잘 반영,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호재’ 담은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

상장사 불공정거래 임직원 3년간 163명 적발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호재’를 담은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부양한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3년간 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로 적발돼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63명(임원 138명·직원 25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05명(임원 95명·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 상장사는 44명(임원 37명·직원 7명), 코넥스에서는 9명(임원 6명·직원 3명)이 적발됐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로는 업무상 알게 된 호재·악재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 공시·보도자료 유포, 시세조종행위 등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재무·공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최대 주주 변경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직무 과정에서 알게 돼 이를 주식 매수에 이용해 부당 이익을 거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급

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로 적발됐다.

회사 경영난이 이어지자 대표이사와 고문이 나서서 실제로는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주가가 급등해 한국거래소가 조화 공시를 요구하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다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시세조종 전문가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사례, 회사 임원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례 등도 조처에 취해졌다.

이산하 기자 goback@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해서 과연 앞으로도 안전할까요? 더 이상 운에 맡기지 말고 이젠 시스템으로 지키세요!

"바이셀프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전 산업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입니다."

7대 핵심요소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산업·규모 특성별 최적화된 맞춤형 이행 = 근로자는 위험 불안 해소, 대표자는 중처법 대응 완료!

2025 한정 프로모션 최대 60만원 혜택! 연간이용권 가입 시 최대 100만원 혜택!



프로모션 및 도입 문의 062-971-1775 | 중대재해처벌법, 아직 대비하지 못하셨다면?

네이버에 바이셀프를 검색하세요.

